

광주FC 소속 창 vs 방패, 서아시아 U-23 우승 다툰다

한국 엄지성

호주 포포비치

준결승서 '엄지성 결승골'...사우디 1-0 꺾고 결승 진출

27일 호주와 결승전...광주FC 선수들의 맞대결 흥미진진

2024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 우승컵을 놓고 '광주FC 맞대결'이 펼쳐진다.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알 무바라즈의 알 파테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1-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27일 오전 5시 호주와 우승을 다툰다.

광주FC의 엄지성이 전반 41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골대를 가르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0-0으로 맞선 전반 40분 한국이 큰 위기를 넘겼다. 한국이 페널티아크 부근 오른쪽에서 상대에게 프리킥을 내렸다. 수하이브 알자이드가 키커로 나서 때린 공이 수비벽 넘은 뒤 휘어져 한국 골대로 향했다.

골키퍼 백종범(서울)이 몸을 날려 공을 쳐내면서 한국의 실점을 막았다.

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한국이 기다렸던 골을 만들었다. 중원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상대가 쳐냈지

만 배준호(스톡홀름 시티)가 달려들어 공을 낚아챘다. 이어 배준호가 페널티 왼쪽에서 침투하던 엄지성에게 공을 넘겼다.

골키퍼를 마주한 엄지성은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을 선보이며 골망을 흔들었다.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면서 이날 신경전도 있었다.

후반 14분 왼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볼 다툼이 있었고, 홍시후(인천)에 밀려 상대 선수가 광고판 뒤로 넘어졌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홍시후에게 달려드는 등 감격싸움도 전개됐다.

이후 남은 시간 두 팀 모두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1-0으로 마무리됐고, 엄지성의 골은 결승골을 확정하는 결승골이 됐다.

한국의 마지막 상대는 호주가 됐다.

호주는 이집트와의 준결승전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호주 첫 번째 키커가 이집트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고개를 숙였고, 이후 연이어 실축이 나오면서 0-0. 호주도 골키퍼의 선방으로 이집트를 봉쇄하는 등 긴장감 넘치는 승부차기가 이어졌다. 결국 실축과 선방이 이어진 승부차기는 호주의 2-1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날 호주 대표팀에는 광주FC의 새 외국인 선수 포포비치가 선발로 나와 이집트를 막았다.

한국과 호주가 결승에서 만나게 되면서 광주FC의 '창' 엄지성과 '방패' 포포비치가 우승컵을 놓고 흥미로운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국 대표팀에는 올 시즌 대전에서 광주로 이적한 수비수 변진수도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내달 15일부터 카타르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해 열리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의 전 초전으로 관심을 끌었다. 한국, 호주,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태국 등 8개국이 출전해 각축을 벌였다.

황선홍 U-23대표팀 감독이 축구대표팀 '임시 사령관'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느라 자리를 비우면서 명재용 수석코치가 감독대행으로 대회를 지휘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24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 준결승에서 결승골을 합성한 엄지성(11번)과 배준호(9번). (WAFF SNS 캡처)

'동갑내기' 손흥민·이재성 환상호흡...태국과 리턴매치 승리 기대



23일 태국 방콕 윈드밀 풋볼클럽에서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경기를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의 손흥민과 선수들이 회복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전서 태국과 1-1 무승부

내일 월드컵 조별리그 4차전

태국과의 리턴매치를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이 '1992년생 동갑내기' 손흥민(토트넘)-이재성(마인츠)의 환상 호흡에 승전고를 기대한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로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26일 오후 9시 30분 태국 방콕의 라자방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4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지난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 3차전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트리고도 동점골을 내주고 1-1로 비겼다.

지난 2월 아시안컵 준결승을 앞두고 대표팀 내에서 벌어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손흥민의 물리적 충돌로 팬들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치러진 경기라 승리가 간절했지만 무승부에 그쳐 아쉬움은 더 컸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22일 태국 원정길에 오른 '황선홍호' 태극전사들은 23일 저녁 첫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서며 태국과의 리턴매치 승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월드컵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3차전까지 한국은 2승 1무(승점 7·골득실 +8)를 기록하며 태국(승점 4·골득실 +1), 중국(승점 4·골득실 -2), 싱가포르(승점 1·골득실 -7)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번 태국 원정에서 승리하면 한국은 승점 10을 쌓아 최종예선 진출의 '9부 능선'을 넘는다.

3월 A매치에 나선 23명의 태극전사 가운데 1992년생은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재성, 권경원(수원FC), 김진수(전북)까지 4명이나 된다.

만 나이가 31~32세인 이들은 사실상 대표팀의 주축이다.

태국과 2차 예선 3차전에서는 '92년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태국의 밀집 수비에 막혀 좀처럼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던 대표팀은 전반 42분 페널티지역 왼쪽 구석에서 이재성이 넘긴 킥백을 손흥민이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로 득점포를 터트렸다.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재성은 후반 29분 조규성(미트윌란)과 교체될 때까지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태국전 히트맵을 보면 이재성은 최전방뿐만 아니라 중원과 측면, 후반까지 빠르게 자신의 발자취를 남겼다.

이재성의 도움을 받은 손흥민은 자신의 통산 124번째 A매치에서 45번째 골을 터트리며 차범근(58골), 황선홍(50골)에 이어 역대 한국 대표팀 A매치 최다득점 3위 자리를 이어갔다.

태국 원정에 나선 대표팀의 또 다른 화두는 '이강인의 부활'이다. 손흥민과 충돌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줬던 이강인은 지난 20일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팬들을 향해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사과의 말로 고개를 숙였다.

태국과 3차전을 벤치에서 시작한 이강인은 후반 19분 정우영을 대신해 출전했지만, 기대했던 공격 포인트를 따내지 못했던 만큼 이번 리턴매치에서는 선발 출전과 득점포 가동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 '늦깎이' 태극마크를 단 주민규(울산)의 2경기 연속 선발 출전 여부도 팬들의 이목을 끈다.

21일 태국전을 통해 역대 최고령(33세 343일) A매치 데뷔 기록을 작성한 주민규는 1차례 슈팅 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터라 이번 리턴매치에서 A매치 데뷔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준환,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10위

2년 연속 입상 불발

한국 피겨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점프 완성도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세계선수권대회 2년 연속 입상에 실패했다.

차준환은 24일 캐나다 몬트리올 벨 센터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TES) 80.49점에 예술점수(PCS) 81.95점, 감점 1을 합쳐 161.44점을 받았다.

소프트프로그램에서 88.21점을 기록했던 차준환은 총점 249.65점으로 최종 10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대회에서 개인 최고점(296.03점)으로 2위를 차지, 한국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에 올랐던 차준환은 '톱 10'에 만족해야 했다. 함께 출전한 김현경(한광고)은 222.79점으로 18위, 이시형(고려대·207.59점)은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한국 남자 싱글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 2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됐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은 전년도 성적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된다. 3명이 출전한 국가에서는 상위 두 명의 선수 순위의 합이 13점 이하면 3장, 28점 이하면 2장이 주어진다.

1~15위는 순위 그대로 계산하고, 16위 이하 선수는 모두 16점으로 계산된다. 예선 탈락한 선수

는 18점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차준환과 김현경이 각각 10위(10점)와 18위(16점)를 차지해 26점을 기록, 내년 출전권 2장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 우승은 프리스케이팅의 7개 점프 과제 가운데 무려 6개를 쿼드러플(4회전)로 소화한 '점프 황제' 일리아 말리닌(미국)에게 돌아갔다.

일본의 가시아마 유마(309.65점)가 2위, 아당 샤오잉파(프랑스·284.39점)가 3위에 오른 가운데 대회 3연패를 노렸던 우노 쇼마(일본·280.85점)는 4위로 밀렸다.

차준환은 소프트프로그램에 이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점프 완성도가 아쉬웠다.

첫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기본점 9.70)에서 수행점수(GOE) 2.49점을 따내며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던 차준환은 이어진 쿼드러플 토틀루프를 1회전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차준환은 세 번째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트리플 토틀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쿼드러플 살코가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았고, 토틀루프 점프마저 1회전으로 처리하며 불안한 연기를 이어갔다.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한 차준환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 이어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더블 악셀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어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다시 시도한 트리플 악셀에서 넘어져 감점 1과 함께 GOE를 4점이나 손해 봤다. /연합뉴스

'평양 홈경기 취소' 북한, 일본에 0-3 몰수패

FIFA, 징계위원회 회부

일본 승 없이 승점 12점 확보

국제축구연맹(FIFA)이 오는 26일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과 북한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4차전 개최를 공식 취소했다.

FIFA는 24일(한국시간) "일본과 북한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4차전을 취소했다. 이번 일정은 재조정되거나 다시 치러지지 않는다"라며 "북한이 대체 경기장은 물론 연기에 따른 새로운 경기 날짜를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FIFA는 북한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이번 '평양 원정' 경기를 일본의 3-0 몰수승으로 확정했다.

일본은 평양 원정 없이 승리를 따내면서 승점 12를 확보, 2차 예선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반면 북한은 몰수패를 당하면서 승점 3(1승 3패)으로 3위에 머물렀다. 북한은 26일 예정된 시리아(승점 4)와 미얀마(승점 1)의 경기 결과에 따라 최하위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일본의 평양 경기는 지난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두 팀의 3차전 직후부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파묘 |
| 2관 | 둔: 파트2, 가여운 것들 |
| 3관 | 랜드 오브 배드, 밤 말라: 원 러브, 메이 디셈버 |
| 4관 | 극장판 스피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
| 5관 | 둔: 파트2, 윙카, 당신이 잠든 사이 |
| 6관 | 파묘, [위드키즈]브레드이발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 리볼버 밀리 |
| 9관 | 파묘, 당신이 잠든 사이 |
| 7관 | 쌔대껴들 파묘 |
| 8관 | 쌔대껴들 파묘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월)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